

#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쿠도(工藤武城)의 “婦人科學”적 지식을 중심으로\*

홍양희\*\*

1. 머리말
2. ‘부인과학’적 ‘지식’의 생산자·전파자
3. 생리적 불안정성과 여성의 ‘범죄’ 성향
4. 여성 범죄와 조선 사회의 ‘전통’
5. 맺음말

## 1. 머리말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적 관행이나 전통적인 것으로 알려진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거기에는 일정한 정치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유럽이나 비식민지 근대 국가에서 ‘전통’이 국민통합이라는 일정한 의도 아래 만들어졌다면, 식민지에서 그것은 민족주의적 혹은 식민주의적 상상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간 탈식민주의 연구들은 식민지 사회에서의 ‘전통’이 서구의 모더니티를 기준으로 발명됨으로써, 식민지 사회의 다양성이 삭제되고 단일하고 비역사적인 공간으로 재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서구와 식민지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지점에서 구성된 ‘전통’은 식민지의 열등성과 후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08-361-A00005).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133-791  
전화: 02-2220-0545 / 이메일: yangheeh@gmail.com

진성의 표상으로, 식민 지배에 정당성의 논리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식민지에서 '전통'은 서구적 모더니티의 산물이자 이면이며, 그 사회의 본질적인 그 무엇이기보다는 당대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산된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적 상상력에서 “수(數)”가 가지는 중요한 위치에 대한 아파두라이(Appadurai)의 지적은 산술적 분석이 가진 식민지 정치학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수로 표현되는 통계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라는 믿음에 의해 파워를 발휘하며,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규율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였기 때문이다(아파두라이, 2004). 이 만큼이나 식민지적 상상력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과학’ 및 ‘의학’ ‘지식’이었다.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 서양 ‘의학 지식’은 발전과 진보라는 신념에 의해 파워를 발휘하였으며, 식민지 권력을 작동시키는 주요한 권력 장치 중의 하나였다. 이를 반영하듯, 식민지 조선에서 권력과 의료의 관계, ‘의학’ 지식을 통한 인류학적 시선이 가진 식민지 정치학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서홍관 · 신좌섭, 1999; 박윤재, 2005; 박순영, 2006; 김옥주, 2008; 정준영, 2012).

이 논문 또한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에서 “부인과학” ‘지식’이 식민지 조선 사회를 어떻게 재현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의 ‘전통’이 발명되는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한 일본인 산부인과 의사 쿠도가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하고 전파한 “부인과학” ‘지식’에 주목할 것이다.<sup>1)</sup> 쿠도는 과학 및 의학 지식을 통해 식민지 사회가 상상되는 방식과 그것이 가진 식민지 정치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기

1) 工藤武城의 이름은 연구자 사이에서 쿠도 다케시로(최재목, 전미경, 홍양희), 쿠도 다케쥬(장용경), 쿠도 다케키(Jun Uchida)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일본에서 발행된 『범죄학잡지』 9권 1호(1935)에 실린 쿠도의 논문에는 工藤武城에 “クドウブジヨウ”로 후리가나가 붙어 있다. 그러나 이 잡지의 독일어 논문 목차에는 그의 이름을 “T. Kudo”로 표기하여, 모순을 보였다. 또한 1934년 3월 3일자 『경성일보』에 ‘조선대아시아협회’ 결성 및 활동과 관련된 기사에 실린 그의 한자 이름 중 工藤武까지 “くどうぶ”라는 후리가나가 붙어 있다. 반면 1910년 4월에 발행된 長崎医学専門学校研瑤会雑誌에 실린 그의 독일어 논문에는 그의 이름이 “T. Kudoh”로 되어 있다. 1905년 10월에도 그는 이 잡지에 일본어 논문을 실었는데, 그 논문의 독일어 목차 역시 “T. Kudo”로 명기 되었다. 따라서 쿠도의 이름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여전히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쿠도’라는 성만을 사용하고자 한다.

홍양희 :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쿠도(工藤武城)의 “婦人科學”적 지식을 중심으로

때문이다.<sup>2)</sup>

1905년 조선에 온 쿠도는 경성에서 부인병원을 운영하는 개업의였지, 대학에서 의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는 일본뿐만 아니라 당시 이른바 의료 선진국이라 할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에서 유학한 산부인과 의사로서 자신이 가진 의료 지식을 수많은 글과 강연을 통해 생산하고 전파하는데 선구적인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었다. 특히 ‘통계’와 “부인과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조선에서 일어나는 여성범죄를 분석한 그의 야심찬 장편 시리즈인 논문은 “본부살해”라는 잔혹한 범죄를 식민지 조선 “특유의 여성 범죄”로, “조혼”을 남편살해를 유발하는 조선의 ‘결혼 관습’이자 ‘악습’으로 자리매김하였다.<sup>3)</sup> 이 글은 당시 『동아일보』 김정실 기자의 “본부살해의 사회적 고찰”이란 제목의 12회에 걸친 기사에 거의 그대로 차용되었을 정도로, 당대 지식인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sup>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장 겸 사범부장관이었던 고쿠분 산카이(國分三亥)가 처음 조선의 ‘남편 살해’ 현상에 주목한 이래(國分三亥, 1917),<sup>5)</sup> 쿠도의 “부인과학”적 분석으로 인해 “본부살해”는 명실상부한 조선 여성의 ‘범죄’로서 담론적 헤게모니를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쿠도라는 인물과 그의 ‘부인과학’ ‘지식’에 주목한 연구는 전혀 없

2) 뿐만 아니라 쿠도는 병합 이전에 조선에 들어와 ‘재조선 일본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던 인물이다. 그 점에서 그는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한 재조선 일본인 사회의 성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3) “朝鮮婦人の本夫殺害の婦人科學的考察”이라는 7회에 걸친 연재물이 잡지 『조선』에 1929년 3월부터 12월까지, 1933년 2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나 게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범죄학잡지』에도 같은 글이 9회에 걸쳐 실려 있다 (工藤武城, 1929b; 1929c; 1929d; 1929e; 1929f; 1929g; 1929h; 1933a; 1933b; 1933c; 1933d; 1933e; 1933f; 1933g; 1933h; 1933i; 1933j; 1934a; 1934b; 1934c; 1934d; 1934e; 1934f). 본 논문에서 본부살해와 관련된 논의는 1933년 잡지 『朝鮮』에 실린 글을 기본 사료(工藤武城, 1933a; 1933b; 1933c; 1933d; 1933e; 1933f; 1933g)로 사용하였다.

4) 동아일보의 김정실 기자는 “본부살해의 사회적 고찰”이란 제목의 시리즈 기사를 1933년 12월 9일부터 1933년 12월 2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그의 논지는 쿠도의 것을 상당부분 차용한 것으로, 쿠도가 사용한 통계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것도 발견된다.

5) 고쿠분의 논문은 쿠도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쿠도는 고쿠분의 통계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다. 다만 그가 쓴 '남편살해'와 관련된 글이 이 사건을 다룬 논문들에서 여러 논자들에게 의해 인용·분석되었을 뿐이다(류승현, 2001; 장용경, 2007; 전미경, 2010; 홍양희, 2011). 이들 연구에서, 그의 글은 식민지적 재현과 식민지 정치의 문제로 접근되는 경우, 혹은 그의 글 내용 자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큰 편차를 보인다.<sup>6)</sup>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전자의 논의를 따르면서, 기존 연구에서 전혀 분석되지 못한 "부인과학" '지식'과 여성 범죄, 그리고 식민지적 재현 및 '전통' 문제에 천착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식민지적 상상력이 구성되는데 개입하는 의료와 젠더, 모더니티와 전통의 상관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점에 있다. 즉 성차와 섹스에 관한 과학 및 의학 지식이 끊임없이 남녀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성별역할 분담을 구축하는데 작용하였다면, 식민지에서 작동하는 이들 지식은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식민지인에 대한 차별과 지배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식민지에서 서구 의학 이론이 읽히고 소비되는 사례를 통해, 그 종족의 고유한 것으로 상상되는 '전통'이 사실상 제국이라는 공간 사이, 그리고 그 내부에서 작동하는 지식의 트랜스내셔널 순환(transnational circulation of knowledge) 과정에서 구성되었다는 점 또한 보여줄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의학'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실천적 역할에 충실한 쿠도의 의사로서의 위치를 부각시킬 것이다. 제3장에서는 그가 이러한 '의학' '지식'에 기반하여 여성의 몸을 어떻게 보았으며, 그것이 조선 여성의 범죄와 맺는 관련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조선의 '전통' 구성에 쿠도의 의학 지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

6) 이 연구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홍양희, 2011)의 논문 참조.

## 2. '부인과학'적 '지식'의 생산자 · 전파자

1878년 5월 1일, 구마모토현(熊本縣)에서 출생한 쿠도는 19세에 나가사키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의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1901년 의전을 졸업한 그는 그해 12월 도쿄제국대학 부인과 교수 하마다(濱田玄達)의 조수가 되었다.<sup>7)</sup> 1903년 9월에는 독일 유학길에 올라 뷔르츠부르크대학 부인과 교실에 들어가고 1904년 7월 26세에 독일 의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12월 한성병원의 부인과부장으로 경성에 온 그는 2년 후인 1907년 11월부터는 '경성부인병원'을 개업하였다.<sup>8)</sup> 1913년 7월에는 프랑스 파리대학 퀴리라뎀 연구교실에 들어가 수학한 후 1915년 12월 조선으로 귀국하여 병원 운영을 계속한다. 그의 의사로서의 이력은 일본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파리로, 파리에서 다시 조선으로 이어졌다.<sup>9)</sup> 그의 '의학' '지식'은 일본에서 출발하여 유럽과 조선 사이를 순환하면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의학 전문가로서 그의 의학 지식이 펼쳐진 곳은 제국 일본의 내지가 아닌, 식민지 조선의 경성이었다. 그가 어떤 계기에서 독일 유학 후 조선으로 들어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조선에서도 러일전쟁 이후 근대적 의료와 임상 의사들의 필요성이 고조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특히 일본 거

7) 濱田玄達은 동경제대 교수. 메이지 시대의 의학자. 일본 산부인과학의 개척자. 구마모토(熊本)현 출생. 1880년 동경제대 의학부 졸업. 구마모토 의학교 교장 및 병원장을 거쳐, 1884~1888년 독일에서 유학한다. 귀국 후 동경제대 의과대 교수로 부임, 1890년 산과학교실 산과양성소를 발의하여 설치하고 조산사 양성에 힘썼다. 일본부인과학회를 창립하여 회장에 취임하였다(緒方正清, 1918, 1204-1212). 나가사키의전을 나온 쿠도가 어떻게 동경제대의 하마다 교수의 조수가 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으나, 다만 둘다 구마모토 출신이고 하마다가 구마모토의학교교장을 역임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적 연고가 작용하였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8) 경성신문사에서 발행한 『大京城公職者名鑑』(1936)에는 쿠도가 1904년 독일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12년 발행된 그의 저서 『婦人の調攝』에는 “德國醫學士 工藤武城 謹識”이라는 서명이 있는 점, 독일에서의 수학 기간이 1년 여 남짓인 점 등에서 볼 때, 의학사인 것으로 보인다.

9) 1928년 『婦人之養生』의 4판 서문에 따르면, 그는 1901년 처음 동경제대의 교수 濱田玄達의 조수를 출발점으로, 뷔르츠부르크대학의 호프마이어, 베를린대학의 울스하우젠 및 비뮴, 파리대학의 테스만 교수에게 사사 받아 전문적인 산부인과 의사, 임상 의사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류민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병원과 의사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제국대학 출신이 아닌 쿠도가 의학 연구자이자 엘리트 의사로 활동하기에는 식민지 조선이 조금 더 용이했을 지도 모르겠다. 식민지 조선의 경성에 자리 잡은 의사 쿠도는 부인병원을 운영하는 한편, '의학' 전문가로서의 지식, 그 중에서도 특히 '부인과'와 '산과'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역할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저술, 강연, 언론 기고 등 세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쿠도가 가장 먼저 저술한 '부인과학' 서적은 『婦人之養生』이다. 이 책은 총 4권까지 출판되었는데, 처음 제 1권이 출간된 것은 1907년이였다. 이것은 “겨우 100페이지도 안 되는 소책자”였다(工藤武城, 1928: 1). 그 다음 판은 1913년 1월에 발행되었는데, 두 달 전에 발간된 『婦人の調攝』의 일본어판이다. 일본어 원고를 한글로 번역하여 『부인의 조섭』이란 제목으로 동경의 쓰키지(築地) 활판소에서

먼저 출판하고, 『婦人之養生』이라는 제목의 일본어판을 출간하였다. 이것이 이름 하여 2판이다. 이 또한 “겨우 156페이지에 불과한 책자”였다(工藤武城, 1928: 2). 그 후 1922년 7월 『婦人之養生』의 제 3권이 발행되었는데, 이는 “약간의 정정과 두 세 개의 삽화를 증가시켰을 뿐”이었다.<sup>10)</sup>

이에 반해 1928년 출판된 제 4판은 전면적인 개정과 가필을 한, 거의 새로운 책이나 다름없었다. 삽화도 대략 100여 개가 들어가고, 3권의 3배에 달하는 460 페이지의 두꺼운 책으로 재탄생하였기

그림 1. 쿠도의 모습  
Fig. 1. Picture of Kudo



(工藤武城, 1912)

10) 필자는 쿠도의 이 책들 중 1권과 3권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한글판인 『부인의 조섭』(1912), 『婦人之養生』 2판(1913)과 4판(1928)이 소장되어 있다.

때문이다. 그는 “현재까지의 학설은 대개 망라할 작정이었다. 일본은 물론 영국, 불란서, 독일의 주요한 전문 서적이나 잡지에서는 진실로 채택해야 할 것이 있으면 출판 직전에 도착한 것조차도 빠짐없이 집어넣었다.”고 하면서 “이런 종류의 서적에서는 아마도 유례가 없는 기획”이라고 대단한 자부심을 피력하였다(工藤武城, 1928: 6-7). 즉 당시 근대 의학의 선두주자라 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최첨단의 의학 지식을 섭렵하였다는 것을 아울러 과시하였다. 그 이전의 책들이 비매품으로 발행된 것에 비해 이 책은 정가가 ‘三圓’으로 매겨져 있었다.

그런데 쿠도가 한글판인 『부인의 조섭』을 출간하게 된 이유가 시선을 끈다. 이것이 순종의 명을 받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순종이 쿠도에게 “부인의 위생에 관한 소책자의 편찬”을 위촉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당시 순종은 왕가에 출입하는 옛 신하들의 가정에서 부인과 질환이나 임신, 분만, 산욕 때문에 여성들이 빈번하게 사망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이것은 『부인의 조섭』의 가장 앞에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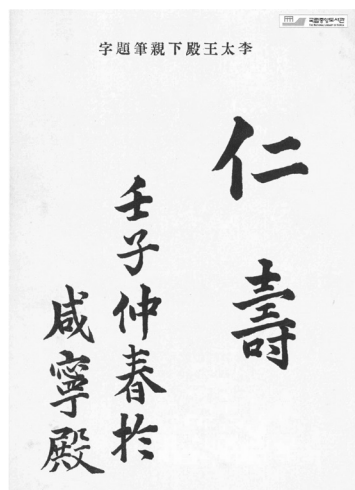
東洋婦人は 너무 억지 죽음이 過多하니라 그 중으로 논지할지라도 조선부인의 모랄 병적된 사람들은 일신하난 의학의 은택을 입지 아니하고 슬픔을 머금고 세상을 버리나니라 오시에 이태왕전하께서 김히 이일을 진엄하셔서 필경은 조선부인의 위생사상이 결핍한 결과인즉 통촉하사 이 책을 저술하라난 명을 전하섯삽기에 그 영지랄 김히 감격하와 명치44년 3월부터 기초하야 익 대정원년11월에 지하야 비로소 탈고하얏나니라(工藤武城, 1912: 1).<sup>11)</sup>

위의 글에 의하면, 조선 부인들이 지나치게 많이 죽는 원인은 이들이 “의학의 은택”을 입지 못하고, “위생사상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한 순종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 때 이왕직차관 고미야 미호마츠(小宮三保松)가 순종에게 쿠도를 소개하였고, 그것이 쿠도로 하여

11) 이 논문에는 한글 고어체가 등장한다. 이 중 ‘·’와 ‘ㅅ’과 같은 고어체는 편집의 편의상 ‘·’는 ‘가’로, ‘ㅅ’는 ‘ㅈ’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그림 2. 순종의 題字

Fig. 2. King Sunjong's Granted Calligraphy for Kudo's Book



(工藤武城, 1912)

금 조선 여성을 위한 부인과학서를 쓰게 하였던 것이다(工藤武城, 1928: 4). 이는 한국의 위정자들에게도 서양의 근대 의학에 대한 열망이 강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순종은 이 책이 완성되자 친필로 ‘어진 덕이 있고 수명이 길다’는 의미의 ‘仁壽’라는 題字를 써 주었다. 쿠도는 이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웠는지, 일본어 판본과 그 후에 발행한 『부인지양생』의 4판에 이르기까지 “李太王殿下親筆題字”라는 설명과 함께 순종의 친필을 모든 책에 실었다. 이는 ‘순종’의 권위를 통해 이 책이 가진 무게감을 증폭시키는 한편, 조선인들에게 강

한 호소력을 가지기 위한 의도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쿠도 역시 조선 여성들에게 의학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서적들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죽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죽음에 이르는 조선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학 지식을 전파하고, 서양 의학에 대한 계몽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부인병과 임신 및 분만, 산욕 시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난산일 경우 의사가 올 때까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를 하여 조선 ‘여성’의 몸에 서양의 근대적 의료가 본격적으로 개입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동양부인’에게 “억지 죽엄”이 많다는 그의 언급에서도 보듯이, 그에게 ‘동양 의학’은 ‘서양 의학’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종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었다. 서양 의학은 사람을 살리는 의학이고, 동양 의학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상상되었다. 그의 뇌리에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인식론적 구별, 합리적이고 우수한 ‘서양’ 저 편에 존재하는 ‘동양’은 비합리적이고 열



등하다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조선에서 행해지던 의료 행위는 “서투른 치료와 매약”이 되었다. 그리고 근대적 의료인 ‘산과’, ‘부인과’에 몸을 기대지 않는 행위는 조선인이 가진 ‘야만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되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야만의 생각”과 아울러 “여성의 생리에 능통치 못한” 의학 지식의 ‘무지’와 ‘미신’으로부터 조선 여성을 구하는 ‘근대 의료’는 그리하여 조선 여성의 ‘생명’을 구할 하나의 빛과도 같은 것으로 의미가 부여되었다(工藤武城, 1912: 1-2).

『부인의 조섭』의 주요 독자가 조선 여성으로 상정되었다면, 『婦人之養生』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 모든 여성들이었다. 특히 4판은 ‘병원이나 전문적인 의사가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그의 인식으로부터 나왔다. 내지에서는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전문병원에 가서 적합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조선 지방의 의사의 상태는 (중략) 부인과의는 물론 산과조차 상당히 불충분”하여, “적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간에서 할 수 있는 한의 처치는 모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설령 전문의나 산과가 없는 지역에서도 이것에 의하면 지금까지와 같은 처참함, 듣기 감당키 어려운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이 책이 가진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한명의 어머니, 한명의 아이라도 이 책으로 구한다면 본인의 노력이 보답”을 받는 것이라는 소회 또한 추가하였다(工藤武城, 1928: 7-8).

책의 내용은 크게 ‘부인병론’과 ‘산과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편 부인병론에는 제1장 부인의 생식기, 제2장 輪卵, 제3장 월경, 제4장 외음부의 질환, 제5장 질의 질환, 제6장 자궁의 질환, 제7장 난소 및 수란관의 질환, 제8장 비뇨기 계통의 질환, 부록: 항문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편 산과론에는 제1장 임신, 제2장 분만, 제3장 산육, 부록: 수술에 관하여로 되었다.<sup>12)</sup> 쿠

12) 먼모를 일신한 1928년 출판된 일본어 4판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구성인데, 제1편 5장에 유방의 질환이 더해졌고, 부록으로 다루던 것들이 하나의 장으로 독립되었다. 반면 그 내용은 거의 새로 썼다고 할 만큼 전반적으로 내용이 세분화되고 풍부해져 있었다.

도는 이 책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과 아울러, 생리학에 기초하여 산과론, 부인과론을 설명하였다.

본문제를 설명하기에 당해야 알기 어려운 의학상의 문자난 아 모조록 쓰지아니할터이니 부인의 신체가 엇더케 생긴것이며 그 생리의 대강을 아지못하면 설명을 아라듯기, 대단히 어려운고로 위선 그 생리의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할 터인데 완고한 道學선생님의 눈으로 보면 혹 褻慢하다는 일도 잇슬터이오니 본인은 期於히 학문을 충실하게 차에 설명하터이니, 이난 세상에 부모되고 남편되고 기혼자와 미혼자를 불문하고 모든 부인 前에 차서랄 진정하야, 세상에 가장 퍼지지아니한 부인병과 임신과 기타 산육 등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자 함이라(工藤武城, 1912: 2).

한편 여기에는 여성의 '몸', 특히 '생식기'에 대한 상당히 세밀한 해부학적 삽화가 게재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 그림들이 "비루하고 외설스러운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였다는 점이다. 4권에 실린 1판 서문에 "책중의 삽화는 모두 부인병원에 제공되는 표본으로부터 선출하여, 화가로 하여금 그리게 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일 실물을 보고 싶은 사람은 언제라도 병원에 오면 기쁘게 보여주겠다."는 부언을 하였다(工藤武城, 1928: 2). 그로써 그것이 호기심 자극용이 아닌,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하였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부인과 지식에 대한 계몽은 '강연회'를 통해서도 또한 이루어졌다. 그는 신문사나 정치단체에서 주최하는 대중 강연회의 강사로서 "위생지식"이나 "부인과 지식"을 설파하였다.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열거하면, 그는 1923년 8월 3일부터 3일간 매일신보사에서 주최한 '부인하기대강연회(婦人夏期大講演會)'에 참여하였다. 둘째 날인 8월 4일 강사로 등단하여 "부인위생"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매일신보』, 1923a). 이 날 "25년 동안 부인병에 한하여 전문으로 연구하여 왔고 또 독일과 불란서와 영국과 미국 네 나라에 유학하여 각 학교에서 역시 부인병을 전문으로 연구"하였다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부인 위

홍양희: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쿠도(工藤武城)의 “婦人科學”적 지식을 중심으로

생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특히 부인네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인 “난산(難産)”에 대해 강의하였다. 다양한 실물 모형을 단상에 올려놓고 임신부터 해산할 때까지의 위생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산모가 난산일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만 산모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병원 의료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병원 진료에 대한 강조는 며칠 후인 8월 8일 조신히에서 열린 강사초청 만찬회에서도 이어졌다.

재래의 조선부인은 내외를 심히 하여 중병으로 마지못하여 의사의 진단을 바들 때에도 얼굴과 몸은 보이지 안이하고 손만 내미러 맥을 뵈이난 고로 오날의 실험의학(實驗醫學) 상으로난 시술(施術)할 방책이 업서서 곤란이 막심하여 엇지하면 도선 구식가당의 부인에게 외계의 문명에 접촉하게 하여 이러한 폐단을 업시할가 하얏는데 이번 매일신보사의 주최로 부인강연회를 개최한 것은 가장 시의에 적합할 뿐 아니라 다년 생각해오든 자기의 요망이 매일신보의 힘을 빌어 실현된 것과 일반인즉 자목 유쾌한 일이라(『매일신보』, 1923c).

그의 이러한 소신, 즉 조선 가정에 근대적 의학 지식의 보급과 병원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계몽은 병원비 할인 행사를 마련케 하였다. 특히 그는 “조선부인”은 “외국 의술”에 치료받으려 하지 않아 병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많은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진찰권을 다수 발행”하여 그 진찰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진찰료, 약값 및 입원료를 반액만 받았다(『매일신보』, 1913). 그는 아마도 한국 역사상 병원에서 일종의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고객 유치에 힘쓴 1호 의사이지 않았나 한다. 또한 그는 조선에서 최초로 ‘의료 소송’을 당한 의사였다(『매일신보』, 1917).<sup>13)</sup>

그 외에도 1933년 5월 2일부터 매일신보사 주최로 일주일간 열린 “乳幼兒

13) 자궁병이 있던 森本勝子라는 여성이 쿠도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배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배속에서 가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위자료 ‘오천원’ 청구소송을 경성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는 “조선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고 의학계의 한 문제”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愛護思想 普及大講演會”에 강사로 참여하였다. 이 강연회에는 의학박사 직함이 붙은 전문의사들과 경성제대와 의학전문학교의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는 전문 의학지식과 관련된 강연이 아닌, “비상시 일본의 母性愛”란 주제의 강연을 하였다. 그는 또 자신이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동민회’에서도 강연하였다(朝鮮總督府警務局, 1924).<sup>14)</sup> 1929년 8월 1일 “내선 공통의 醫祖”는 “大己貴神 및 少彦名神”라는 요지의 제5회 동민회 하기대학에서 행한 그의 강연은 『醫學上より觀たる内鮮の關係』라는 제목의 동민총서 제1집으로 발간되었다(工藤武城, 1929a). 이는 ‘내선융화’라는 동민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동시에, ‘일선동조’라는 제국의 식민지 조선 통합 원리에 충실한 내용이었다.<sup>15)</sup>

다른 한편, 그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계몽 활동은 언론 기고였다. 직접적으로 현실 식민지 정치와 관련된 글을 쓰는 동시에,<sup>16)</sup> “부인과학” 지식의 보급에 앞장을 섰다. 『매일신보』, 『경성일보』, 잡지 『조선』, 『문교의 조선』, 『경무회보』 등에 다수의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급만주』에는 가장 많은 글이 실려, 의료와 관련된 기사만도 50건 이상이었다(연세대 의사학과, 2008). 그는 단편적인 의학 칼럼도 썼지만 시리즈물을 연재하는 고정 필진이기도 하였다. 『경무회보』에 “婦人に關する法醫學”이란 제목의 연재물을,<sup>17)</sup> 『매일신보』에는 “安産과 難産”을 주제로 17회에 걸쳐 연재가 있었다.

14) “아시아민족의 결합과 내선의 융화 및 사상의 선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민회는 내선관민 7백명의 찬조를 얻어 1924년 4월 15일 오후 2시부터 경성 공회당에서 창립총회 및 발회식을 거행하였다. 평의원에 工藤武城의 이름이 올라 있다. 강연회, 강습회 등 계몽 위주로 활동하였다.

15) 쿠도는 다수의 예술품을 소장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퇴계 이황의 초상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이 소장품은 1934년 조선사정협회출판부에서 나온 『日本の教育精神と李退溪』에 실려있다. 그는 이 책에 그가 소장한 초상화를 제공하고 교열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일본의 교육정신+이퇴계’라는 도식을 만드는 동시에, ‘근대적 의미의 퇴계상’을 창출하는데 관여하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최재목, 2008: 8-21).

16) 그는 의학과 관련된 글 외에도 식민지 정치와 관련된 글들도 자주 게재하였다. 대표적인 글로는 일본의 조선 합병을 합리화하는 다음의 글이 있다(工藤武城, 1919a; 1919b).

17) 工藤武城, 「婦人に關する法醫學(一)」, 『경무회보』 182호, 1920년 7월부터 1921년 12월 199호에 15번째 글이 실린 것까지 확인하였다.

홍양희 :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쿠도(工藤武城)의 “婦人科學”적 지식을 중심으로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글이 서론에서 언급했던 “朝鮮婦人の本夫殺害の婦人科學的考察”이라는 연재물이다. 그는 이 장문의 시리즈물을 잡지 『조선』에 두 차례, 일본에서 발행된 『범죄학잡지』에도 또 한 차례, 총 3차례에 걸쳐 실었을 정도로 대단히 자신감을 가진 역작으로 자부한 듯하다. 특히 이 글은 ‘범죄’와 ‘여성’ 문제를 통해, 식민지 조선 사회가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 쿠도는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인과학”적 지식을 피력하고, 그 입장에서 서서 조선 ‘여성’의 ‘범죄’와 조선 ‘사회’, 그리고 그 사회의 ‘전통’을 설명하였다. 이 점에서 이 글은 조선 ‘전통’ 구성에 그의 ‘의학 지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다음 장들에서는 그가 여성의 몸, 범죄, 전통의 문제를 “부인과학”이라는 의학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3. 생리적 불안정성과 여성의 ‘범죄’ 성향

일본과 유럽에서 의학을 공부한 쿠도가 바라보는 여성의 ‘몸’은 서구 근대 의학의 해부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지식에 기반해 있었다. 우선 그는 여성의 “생식기”와 “여자 특유의 범죄”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리고 이전에 알 수 없던 여성의 ‘악마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근대 의학, 그것도 “부인과학”을 통해 해명되어, 여성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부인과학”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근세 부인과학의 진보”와 함께 부인에게만 일어나는 행위가 “여자 생식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태고부터 “수수께끼”였던 것이 풀렸다고 하여, 근대 의학이 가진 ‘진실성’ 또한 강조하였다(工藤武城, 1930a: 40). 이로 인해 쿠도는 남녀의 생식기의 차이가 인간의 행동을 규정한다는 ‘성 본질주의’적 인식론을 가지고 있었다.

남녀의 차이는 생식기의 차이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여자에게는 유아시대부터 노년시대에 이르기 까지 일종의 주기율이 있다. 이 점은 남자와는 이미 출발점에서 다른 것이다. (중략) 인류의 태아는 그 태생 4개월째에 비로소 남녀의 성별이 시작된다. (중략) 남성의 생식기는 전방으로 돌출하여 바깥 방향으로 발육하는데 반해, 여자의 생식기는 이와 반대로 더욱 속안으로 함몰한다. (중략) 남성 생식기는 매우 복잡한 발달을 하는데 반해, 여자의 생식기는 원시적인 형태에 머문다. 다시 거슬러 태아생성의 有樣을 관찰하여 보면 남성의 정자는 매우 활발하게 용약 돌진하는데 반해, 여자의 난자는 전혀 운동성을 결여하고, 겨우 나팔관 및 자궁점막, 상피세포의 직모운동에 의해 도는 것이어서 철두철미 被動性이다. 이 양자의 태생기에 차이는 남녀 양성의 終生을 지배하는 鐵則을 만드는 것이고, 胎生의 상태와 심리상태는 항상 병행상태를 달리 성욕과 정신은 항상 동일 궤도를 간다. 닥터 리프만도 말했듯이, 만일 이 양자를 분리하면 여자 性行의 연구는 수족을 절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중략) 膾의 작은 골반 내에 숨어 전혀 外界와 접촉하지 않는 바의 생식기같이 여자는 대부분 실내에 칩거하여 사회와 접촉하는 경우가 적고, 따라서 外界의 刺激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고, 소위 刺激性이 天性이 된다 (工藤武城, 1930a: 40).

당시 의학자들과 같이 쿠도는 '생식기'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의 "정신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다. 남성은 복잡하게 변화하고 능동적이며 진보적인 반면, 여성은 단순하게 변화하고 피동적이며 퇴영적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생식기에 대한 주목이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었다. 해부학자들에 의해 신체의 동일성 보다는 양성간의 차이가 크게 강조되기 시작하고, "섹스가 젠더의 새로운 기초로 창조"되는 것은 18세기 중엽 이후이기 때문이다(하정옥, 1999, 34-36).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섹스(sex) 개념은 19세기 중반 사회진화론에 기초한 사회생물학(sociobiology)으로 이어졌다(하정옥, 1999, 26-27). "남자의 성행은 천변만화 돌진적이고 또 능동적인데 반해, 여자의 성행은 항상 단순하고 수동적 또 퇴영적"(工藤武城, 1930a: 40) 이라고 보는 쿠도 역시 남성과 여성을 이원적

홍양희 :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쿠도(工藤武城)의 “婦人科學”적 지식을 중심으로

이고 위계적으로 차이화 하는 사회생물학의 영향 하에 있었다.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의 차이에 대한 주목은 생리학으로 이어졌다. 여성의 몸, 특히 생식기에 대한 생리학적 분석은 대부분의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정체화(identify) 하는 길로 나아갔다. 쿠도는 19세기 이후 서구 유럽을 휩쓴 범죄자에 대한 범죄생리학, 범죄인류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은 '생리적'으로 '범죄'적 성행이 농후한 인간이란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여성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근거는 첫째, 여성만의 생리 현상인 '월경'이었다. 사실상 19세기 이후 의사들에게 월경보다 더 흥미를 자아내는 여성의 생리적 기능은 없었다. 여성의 본성과 관련된 의학 지식 가운데 이후 여 의사들 사이에 가장 치열한 논전도 월경을 둘러싼 것이었다(오조영란, 1999: 77-78). 쿠도는 서구 의학자, 과학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러한 견해에 보편적 확실성을 부여하였다.

신체 구조상 및 기능상 절대로 남자에게는 없고 여자에게만 오르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 (중략) 이 손상성은 춘기발동기부터 월경 폐지기에 이르는 약 30년간 평균 28일에 한번 일어나는 손상이다. 또 월경시에는 자궁점막의 소혈관이 파열하여 출혈한다. 또 처음 이성과 접할 때에도 질 구멍을 덮은 처녀막이 파열하여疼痛과 함께 출혈이 있다(工藤武城, 1930a: 40).

해부학의 대가 오스칼 슈츠 교수가 이르듯 (중략) 유구한 원시 고대부터 인류여성이 다달이 상실해 오는 혈량인 월경은 (중략) 이 손실은 잠시 정신적으로도 잃어, 여자의 지능은 적어 진보하지 못하니, 진실로 부득이한 현상이다. 종래 몽환적으로 노니는 소녀는 초경과 함께 현실의 세계로 돌아온다. (중략) 월경이 바르게 주기성으로 조래하면 모든 자극에 반응이 강하고, 극기심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롬브로소가 창도하고, 다음으로 불란서의 르 구랭 드 소르, 봉당, 라츠카사뉴 등도 이를 승인하고, 독일의 뭇스레 다고네, 후리드리히 등의 제씨도 독약 사용, 방화는 월경 중에 주로 행해진다고 보고하였다(工藤武城, 1933f: 100).

범죄 원인을 파악하는데 성(gender)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한 체사르 롬브로조(Cesare Lombroso) 이래,<sup>18)</sup> 쿠도는 서구의 수많은 학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월경과 범죄의 연관성'은 그들에 의해 보고된 거의 정설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19세기 이후의 의학 지식들은 월경을 온갖 병적인 징후들을 동반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월경이 무기력, 피곤, 두통, 소화불량, 히스테리 신경증 등을 동반하는 장애 현상이라는 견해는 줄곧 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오조영란, 1999, 78). 특히 월경은 일종의 '손실'이자 '손상'으로 해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결핍'은 여성에게 민감하고 극기심을 결여케 한다고 이해되어, 여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으로 나아갔다. 실제로 그는 오스트리아, 일본, 조선의 범죄통계학에 근거하여, 여성 범죄의 상당부분이 월경 중에 일어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工藤武城, 1933f: 101). '월경'은 여성을 남성에 비해 지능을 포함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자란' 인간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가정 밖의 활동을 제약하는 성별 역할 분담을 합리화 하는 '과학적'·'의학적' 근거였다.

둘째, '월경'과 함께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생리 현상은 '임신', '분만', '산욕', '수유' 등 여성의 인간 재생산 활동이었다. 쿠도는 임신에서 수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기의 여성은 범죄 가능성이 많은 '비정상인'이라고 여겼다. 월경 정지에 수반하여 정신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유 없는 혹은 과격한 분노의 표출 등 성격 이상이 발생되기 쉽고, 극단적으로는 "정신병" 상태에 이를 정도라는 것이다. 쿠도에게 "임신 정신병", "산욕 정신병", "수유기 정신병"은 병원의 의사들이 "조석으로" 부딪치는 일상적이고 항상적인 문제이자 "부인과학" 상의 "정설"이었다(工藤武城, 1933f: 102). 임신

18) 롬브로소(Cesare Lombroso, 1835.11.6.-1909.10.19.)는 이태리 정신의학자로 범죄인류학의 창시자이다. "범죄인"을 유형화한 그의 책은 개정 증보를 거쳐 1판(1876), 2판(1878), 3판(1884), 4판(1889), 5판(1896-97)까지 발간되었다. 이를 모두 모아 Mary Gibson and Nicole Hahn Rafter가 *Criminal Man*(2006)이라는 제목으로 편역하였다. 한국에서는 이영역분을 저본으로 이경재에 의해 『범죄인의 탄생-범죄인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2011)으로 번역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글판을 참고하였다.



과 출산 역시 월경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손상”이었다. 임신 중 복부 “피하조직의 파열”, 분만에 즈음한 “軟部 産道”의 손상, 출산 시 “자궁벽과의 剝離” 등 “광범한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다(工藤武城, 1930a: 40). 여성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성질’을 드러내는 것은 이러한 ‘손상성’의 하나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영아살해” 또한 분만 후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여성 특유”의 “생리적 견지”에서 고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에 의하면, “임신, 분만, 산욕 중에 생기는 희로애락의 감정의 변화는 매우 민속하여, 상시와는 거의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어떤 때는 매우 격노하고, 어떤 때는 극도로 침울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생자 분만”일 경우에는 “그 징후가 한층 현저하게” 나타나는 데, 그것은 세상의 이목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임신 및 분만, 산욕시에는 정상이 아닌 정신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이들 현상은 “결코 병리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리적인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었다(工藤武城, 1930b, 61).

그의 이 같은 생각은 여성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갔다. 이때는 “형법상의 소위 책임능력이 감소 또는 소실”되는 시기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형법 제39조”에서도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이를 별하지 않고, 심신박약자의 행위는 형을 경감하여 적용”하듯이, 여성 범죄 또한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工藤武城, 1930b: 61). 더욱이 “독일의 1919년 개정 형법에서는 분만 중 및 분만 후”, “오스트리아의 형법 제139조에서 분만 즈음”이라는 시점에는 “경감제외(Privilegium)를 인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 일본 형법 39조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이를 별하지 않는다. 심신박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경감한다.”에 상당한다는 것이다(工藤武城, 1933f: 102).

셋째, ‘폐경기’, ‘갱년기’의 여성 역시 잠재적 범죄 성향이 있다고 인식되었다. 월경이 끝난 “갱년기 노년기(老女期)”의 여성은 “집요성”을 드러내, 이것이 범죄로 이어질 경향이 농후하다는 판단이다. 이 나이가 되면 “여자는 매

우 범죄성이 풍부하게 되고, 동정심을 상실하고 잔인성을 띤다. 극단적으로 인색한 자아주의가 되고, 아무리 비합리적인 曲說이라도 집요하게 고집하고, 호의 있는 충언도 악의로 해석하여 귀를 빌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工藤武城, 1933f: 103-104). 결국 쿠도의 의학적 믿음에 의하면, 여성은 신체 구조와 생리적 기능으로 인해 항상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이고, 수동적, 억압적, 손상성 등에서 기인하는 생리적 불안정성은 언제든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넷째, 뿐만 아니라, 생물 “진화론”적 관점에서 여성은 ‘범죄적’이었다. 당시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쿠도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은 롬브르소가 발전시킨 ‘진화론’에 의하면, 원시적인 생물의 진화 초기에는 암컷이 우월하여 ‘雌性’이 ‘雄性’을 압도하고, 잔학하게 괴롭히거나 살해하는 원시적 상황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생물은 진화해 오는 도정에 이 성질을 잠재 유전하고, 격세유전을 발현하는 진화론의 원칙”이 있었다(工藤武城, 1933f: 98). 그런데 “격세유전의 성질을 남자에 비해 다량으로 타고난 여자”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이 “잠재된 성질”을 “격세유전의 법칙”에 의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工藤武城, 1933f: 98). 쿠도가 생각하는 그 ‘특정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자애와 동정의 화신이어야 할 여성이 일단 性慾에 變調가 오면, 거기에 인류의 은애도 없고, 여성의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한도 없는 잔인과 굴레 없는 살벌이 머리를 든다. 여자의 잔학성이 생식기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의학의 진보에 수반하여 차체에 천명되기에 이르렀다. 야스니에 따르면 여자의 성질은 매우 단순하고, 남자와의 거리보다도 小兒에 가깝다. 따라서 자신보다 약한 것에는 소위 어린아이가 약자에 이지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여자의 잔학성이나 파괴 본능은 매우 깊이 잠재하여, 용이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일단 생식기에 변조가 오면 무제한적으로 광폭성을 드러낸다(工藤武城, 1925: 46).

“성욕 변조”, 그것이 바로 여성의 ‘격세유전’의 성질을 자극하는 조건이었

다.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여성 특유의 ‘잔학성’은 유감없이 드러날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은 아이와의 거리가 없을 정도로 ‘유아적’인 존재로 정체화 되었다. 단순하고 잔악한 성질을 가진, 어린아이와 다름없는 ‘미성숙’한 인간이 여성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월경과 분만”으로 인해 삶의 상당 부분을 ‘피’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타인의 피 흘리는 고통에도 둔감할 정도로 잔혹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되었다. 월경으로 한 달에 거의 일주일의 혈류를 접하고, 분만 시에도 다량의 피를 쏟는 생활은 여성에게 “고통을 달게 받아들이는데 익숙”하게 하여, “타인의 출혈이나 고통을 보아도 놀라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늘 억압당한다는 강박이 있는 여성에게 이것은 “저항이 약한 방면에서 돌파”될 수 있었다(工藤武城, 1925: 46). 결국 쿠도에게 여성은 생리적으로 잔혹한 범죄적 성향을 내재하고 있는 인간으로 본질화 되었다. “성욕 변조”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무자비한 “잔학성”이 언제든지 발휘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여성’이었다.

#### 4. 여성 범죄와 조선 사회의 ‘전통’

여성의 범죄적 성향에 주목하는 쿠도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 범죄 또한 그의 의학 지식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롬브르소를 위시로 하는 ‘범죄인류학’, ‘범죄생리학’은 그가 조선 여성의 범죄를 바라보고 분석하는데 작용한 중요한 지뢰대였다. 우선, 쿠도는 조선의 여성 범죄에서 ‘특이성’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살인범’이 많다는 점이다. 그가 보기에, 이는 여성이 생리적으로 범죄 성향이 강하다는 그의 일반론에만 의지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나라의 여성 범죄와 비교할 때, 아주 독특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독일, 프랑스, 일본 내지,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의 살인범 남녀 비율을 나타내는 통계를 이용하여 입증하였다.<sup>19)</sup>

19) 식민지적 상상력을 구성하는데 작동하는 ‘數’의 정치학, 식민지에서 ‘통계’가 가지는 정치

표 1. 각국 남녀 살인범 비례  
 Table 1. Ratios of Murderers by Gender and Nation

국명	범인 수	남	녀	남녀 백분율	남자100에 대한 여자
독일	93	91	2	88:12	13.5
불란서	166	145	21	86:14	15.0
내지	616	552	64	90:10	11.0
대만	33	32	1	97:03	3.0
조선	141	75	66	53:47	88.0

(工藤武城, 1933a: 39-40)

〈표 1〉의 통계를 보면,<sup>20)</sup> 타국에서는 여성 살인범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조선에서는 남자 100에 88을 나타내, “내지 여자의 대략 9배”에 이를 정도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살해 대상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들의 ‘남편’이라는 점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조선 여성의 살인범 비율은 10으로 급격히 떨어져 내지 여성과 거의 비슷했다. 그만큼 남편 살해 비율이 높다는 얘기이다. 쿠도가 당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형무소에 복역하고 있는 여자 살인범 106명 중 66명이 남편 살해범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그러므로 쿠도에게 이 범죄는 “다른 민족에 희박하고 유독 조선에만 존재하는” 일종의 “특이한 현상”이고,(工藤武城, 1933a: 56). “범죄 통계학”적으로 “조선 특유의 범죄”였다(工藤武城, 1933f: 105).

그렇다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조선에 남편살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은 누구인가. 조선 여성들이 선천적으로 극악하기 때문인가. 아니라면 그녀들은 왜 이같이 끔찍한 범죄를 행하였으며, 조선에는 왜 이러한 여성들이 많은가. 쿠도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을 찾기 위해 조선의 형무소에 수감된 소위 “본부살해범”들을 직접 접견하였다.

우선 그는 롬브르소의 학설에 따라, 이들 범죄자들이 ‘선천성 범죄형’에 속

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아과두라이, 2004: 202-238; 박명규 · 서호철, 2003; 홍양희, 2011: 86-94).

20) 대만과 조선의 통계는 1930년 국제조사보고서의 살인범 수이고, 내지는 사법성 제24 行刑統計表에 의하였다고 한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논거를 달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였다. 롬브르소는 그 유명한 『범죄인』에서 “선천적 범죄인”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죄자의 두개골을 비롯한 “신체 측정과 인상학”을 토대로 ‘정상인’과 다른 범죄자의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특징들을 유형화하였다(롬브르소, 2011: 73-111). 쿠도는 그가 “유명한 범죄생리학에서 골격, 체질, 감각, 용모” 등에서 볼 때, 범죄자는 “性來의 約束이 선천성이 있고, 인간으로서 불완전하고 야만적이어서, 범죄 책임은 선천성, 유전성에 있다는 학설”을 세웠다고 소개하면서, 그가 내세운 선천적인 여성 범죄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다종다양한 범죄가 동일한 여자에게서 행해질 것; 2) 잔인성이 많은 여자; 3) 신체 정신 모두 남자형(Virilites)에 가까울 것; 4) 유전의 가중; 5) 월경 이상; 6) 신체 좌우 비대칭, 前額後退, 주걱턱, 기타 신체계측학적 이상할 것; 7) 性慾元進, 多淫症, 기타 성욕 이상을 가질 것 등이다(工藤武城, 1936: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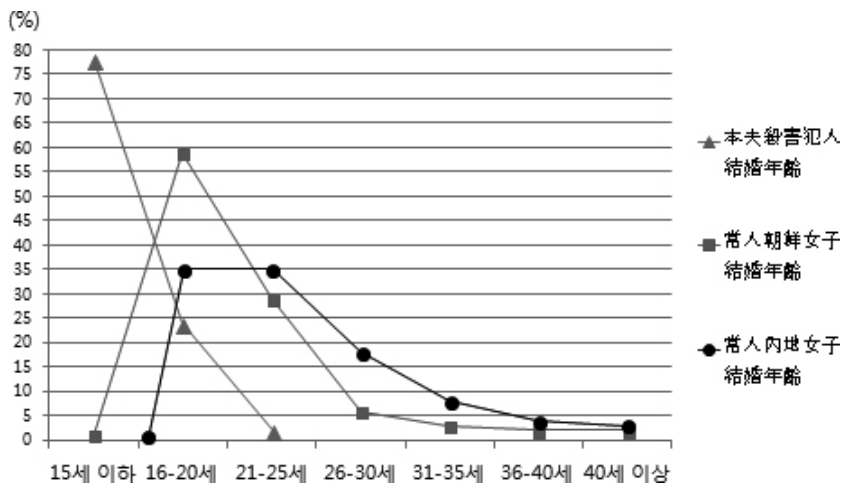
그러나 쿠도가 조사한 남편 살해범들은 위의 유형에 속하는 인물들이 아니었다. 그녀들에게서 “선천성 범죄형”의 구성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다수의 누범을 저지른 사람이 없고, 2) 평소 행동에서 잔인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3) 정신, 신체가 남자와 비슷하지도 않았다. 4) 가족 중에 정신병, 나병, 범죄자가 없어 유전적인 관계도 없는 듯했다(工藤武城, 1933a: 69). 5) 월경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당시 “초경은 범죄학 상 매우 중요한 점”으로, “초경을 일찍 하거나, 春情 조숙증”이 여성 범죄와 관계가 있지만, 이들은 오히려 1년 3개월 늦어, 범죄형과 일치하지도 않았다(工藤武城, 1933b: 46-51). 6) 외모도 범죄형이라 하기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조선 부인보다 미인인 사람이 많고, 체격도 연령에 상당하지 않았으며 기형 또는 현저한 비대칭도 없었기 때문이다(工藤武城, 1933b: 44). 7) 성욕 상태도 특징적이지 않았다(工藤武城, 1933b: 66-68).

이와 같은 조사에 근거하여, 쿠도는 조선 여자의 남편살해라는 현상은 전혀 “선천성 범죄”가 아니고, “기회성 범죄”라고 판단하였다(工藤武城, 1933f: 114). 여기에서 가장 먼저 그에게 포착된 것은 이 범죄자들이 어린 여성들이

라는 점이였다. 이들의 결혼 연령에 주목한 그는 내지와 조선의 일반 여성들과 남편살해범들의 결혼 연령을 비교하여 <그림 3>으로 나타냈다.<sup>21)</sup>

그림 3. 內鮮常人女子, 本夫殺害犯女子의 結婚年齡 比較表

Fig. 3. Comparison of Marriage Ages among Japanese Women, Chosŏn Women and Chosŏn Husband Murder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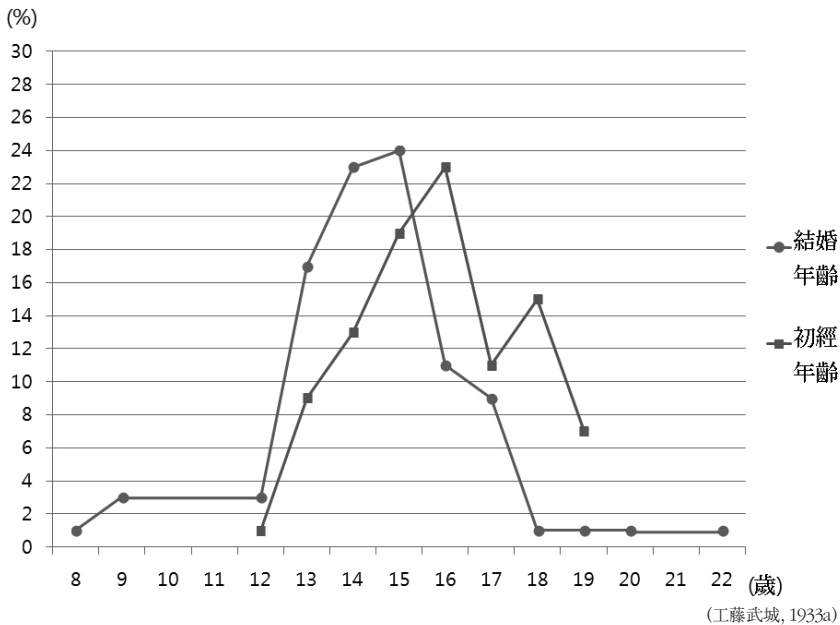
(工藤武城, 1933a)

<그림 3>에서, 일반 내지 여성들은 16세에서 25세 사이에 결혼하는 비율이 70%인데 비해, 조선인 일반 여성은 16세에서 20세 사이가 60%를 차지하였다. 반면 살해범들의 결혼 연령은 15세 이하가 거의 80%에 육박했다. 쿠도에 의하면, 본부살해범의 혼인연령은 “6세부터 시작하여 22세에 끝이 나고”, 일본 형법에서 “화간이라도 강간으로 논하는 13세 이하가 실로 25%”였다. 20세 이상은 겨우 1.5%에 불과하였다. 조선의 일반 여성도 내지 여성들보다 결혼 연령이 낮아, 1931년 경성에서 조선 여성은 “20세 이하에 60% 이상이 결혼”을 하는데 비해, 내지 여성은 “20세 이하의 결혼이 35%”에 지나지 않았다 (工藤武城, 1933f: 108).

21) 그림 3과 4는 쿠도의 논문에 등장하는 그림이다. 그대로 스캔할 경우 불분명하여 거의 그대로 다시 그린 것이다.

그런데 그의 시선을 끄는 또 다른 사실은 남편 살해범의 “결혼”이 “초경”보다도 빠르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성적 부부관계에 들어가는 시기에도 간극이 있었다. 초경 평균인 16세 이전에 한 결혼이 82.1%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결혼연령이 평균 14년 1개월인데 반해 실제 성적 교섭은 평균 15년 1개월이어서, 약 1개년의 차이를 보였다(工藤武城, 1933f: 108). 남편과의 연령 차이도 내지 일반 여성, 조선 일반 여성들의 경우보다 컸다. 그러므로 남편 살해범들은 “부인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 여성의 “생리를 무시하는 부자연이 극에 달한 부부관계”, “부인의 생리를 무시한 성생활” 하에 있었다는 것이다(工藤武城, 1933f: 108).

그림 4. 本夫殺害犯의 初經과 結婚年齡  
Fig. 4. Ages of Menarche and Marriage of Husband Murderers



결국 본부살해가 “선천성 범죄형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그로 하여금 “환경”에 주목하게 하였다(工藤武城, 1933e: 50). 내지 여자가 “의학상의 가

혼기"에 결혼하는 반면, 조선은 "결혼 연령이 지나치게 어린 나이"였다(工藤武城, 1933b: 54). 따라서 쿠도에게 조선의 "본부살해"는 여자의 생식기가 완전하게 발육하여 결혼생활을 하여도 지장이 없는 "가혼기" 이전에, 그것도 "초경"도 하기 이전에 한 "幼女結婚"의 "폐해"로 단정되었다(工藤武城, 1933e:: 52). 조선의 "사회 상태"가 여성 범죄를 "양성 유치"하는 요인이고, 특히 "조혼"과 "여성을 재물시하여 개체 품성을 인정하지 않는" "조선의 사회 악"이 문제였다(工藤武城, 1933e: 50). 그리하여 남편살해는 "본래" "조혼의 나라"인(工藤武城, 1933f: 108) 조선의 "좁게 한정된 지방적 원인만"으로 일어난 범죄이고, 그 원인은 "오직 민족적 지방적 因子뿐"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工藤武城, 1933f:: 114).

이는 '영아살해범'에 대한 설명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선천성 범죄자는 초경이 매우 빠르다는 것이 범죄생리학의 정설인 것에 반해, "범인은 결코 월경이 다른 부인보다 빠르지 않고, 오히려 평균 2년이 늦어서" 영아살해 역시 "일과성 범죄"이지 선천성 범죄가 아니라는 분석이었다(工藤武城, 1930c: 27-28).<sup>22)</sup> 이들의 "결혼연령" 또한 "초경"을 선회하였다. "16세부터 18세 사이에 최대다수가 초경인 반면, 결혼연령은 14세부터 16세 사이에 7할"을 접해, "완전히 天理를 무시"하는 결혼이라는 것이다(工藤武城, 1930c: 29-30).<sup>23)</sup> 그러면서 이렇게 성적으로 상당히 배리가 있는 것은 그녀들의 장래에 무엇인가 變調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工藤武城, 1930c: 31). 더욱이 쿠도는 영아살해범의 연령 또한 흥미롭게 주시하였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35세부터 45세인 10년 사이에 5할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 연령은 부인과학적으로 논하면 여자의 성적 생활

22) 쿠도에 의하면, "1914년 西鮮 평양지방에서 조선부인을 조사하여 평균 16세 6개월에 초경"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李永春씨가 경성 및 개성에서 여학생을 조사하여, 15년을 평균"이라고 보고했다.

23) 그의 통계에 따르면 범인의 결혼연령은 10세를 시작으로 하여 14세에서 16세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하고, 17세부터 의연하게 저하하고 19세에 끝난다. 17세 이후는 전수의 2할에 불과하고 16세 이전의 결혼은 8할을 접한다. 그리하여 결혼연령의 평균은 15년 3개월이다.



이 이미 마침을 고하고 있는 시기로서, 성욕이 다시 왕성하게 된다. 사회적 습관적으로 속박을 받은 금욕생활(주로 과부를 말한다. 과부 혹은 본부 행위불명이 전체의 9할을 점한다)의 회한과 이미 40세에 가까우면, 성적 교섭을 하여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신념에 의한다. 실제 각 범인 개인에 대해 일일이 이를 조사하니 5년, 10년, 길게는 20년에 걸쳐 정절로 과부로서 금욕생활을 한 사람이 40세에 이르러 그 금단을 파기하고, 임신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모두 그러하다(工藤武城, 1930c: 33).

쿠도의 조사에 의하면, 남편살해범이 주로 어린 여성들인데 반해, 영아살해범은 갱년기에 가까운 ‘과부’들이었다. 미혼 여성은 겨우 0.3%에 불과하고 과부 또는 남편이 행방불명이어서 “성적 생활”에서 과부와 같이 사는 사람이 전체의 94%였다. 쿠도가 보기에 이 또한 외국의 사례와 다른, 조선 여성의 영아살해가 가진 ‘특수성’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혼 여성의 영아살해가 최대 다수”이기 때문이었다(工藤武城, 1930c: 34-35). 그에게는 영아살해 역시 “조혼”과 “과부의 재혼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조선의 결혼 풍습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특히 과부가 “사생자 분만”에 따른 “世間體”, 즉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불온한 시선이 두려워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다(工藤武城, 1930b: 62).

이렇듯, 쿠도에게 조선 여성의 “본부살해”와 “영아살해”는 “조혼”이 그 주범이었다. “아직 ‘가혼기’에 도달하지 않은 여자”의 “성적 생활”이 “범죄 경향”에 빠질 위험성이 큰 것은 그에게 절대적 진리였던 듯하였다. “각국의 부인과학자가 일제히 주창”한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工藤武城, 1930d: 81). 초경은 난소에 “그라프씨 胞”를 발생시킬 징후가 만들어진 것일 뿐,(工藤武城, 1930d: 81)<sup>24)</sup> 실제 ‘가혼기’가 아니어서 그보다도 훨씬 후에 결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경 이전에 결혼한다는 점에서, “조선 여자는 심히 불리한 습관에 지배”된다는 것이다(工藤武城, 1930d: 81). 그리고 여성의 생리에 배치되는

24) 배란 직전의 상태. Regnier de Graaf가 발견.

결혼 습속은 성욕 변조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진화론이 증명하듯, 인류도 단세포동물이 체제에 진화한 것이므로 그 진화의 도정에서는 자성이 용성을 억누르고 확대하는 동물의 어느 계급인가를 경과한다. 특히 여자는 남자에 비해 신체정신 모두 '격세유전'의 현상을 드러내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잠재성을 가진 이 성질은 환경의 조건으로 인해 발기할 가능성이 있다. 환언하면 이상 열거한 조선의 결혼양식, 여자인격무시가 이 현상 발기에 적합한 환경을 준다고 보는 것은 지당하다(工藤武城, 1933g: 124).

요컨대 쿠도에게 '조혼'은 성욕 변조를 가져오는 하나의 '울림체'였다. "본부살해범"이라는 "사회병의 증상"은 "조선 민족의 여자만"이 "영악한 소질"을 가져서가 아니라, "조선 특유의 풍속, 습관", 즉 "조혼, 이혼 불가능, 여자의 인격 무시"에 존재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소위 "민족병"인 "본부살해"라는 여성 범죄를 없앨 "치료법"은 조선의 풍속 습관을 고치는 길 뿐이고, 이 "사회악"을 오직 윤리나 교육만으로 없애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 단언하였다. "유교 특히 주자학과의 보급이 가장 완전하다고 칭해지는 조선"에서, "세계에서 비할 데 없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낳은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윤리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工藤武城, 1933g: 120).<sup>25)</sup> 그리하여 원인이 분명한 이상, 속히 "조선 민중"에게 "부인 생리"를 널리 알리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급무"였다(工藤武城, 1933g: 124). 조선 사회의 풍속 교정과 계몽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조선의 여성 범죄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그의 귀납적 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범죄인류학, 범죄생리학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 있었다. 그 원조

25) 그는 또한 교육 보급의 효과 또한 없다고 단언한다. 1911년과 1931년의 범죄율을 비교하여도, 여자교육이 보통학교 졸업생만을 계산하여도 약 100배가 될지라도 본부살해범은 의연히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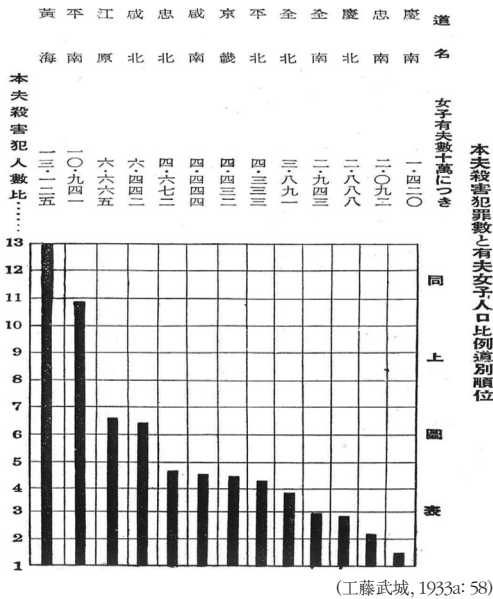
인 롬브로소의 여성 범죄자에 대한 논의는 그가 조선 사회를 진단하는 인식론적 기반이었다. 롬브로소는 “선천적 범죄인”을 유형화 하고 그에 대한 학설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기회성 범죄인”론도 동시에 주장하였다. 특히 여성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는 냉정하게 여성의 열등성을 바라보면서도, 많은 여성 범죄자들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소수의 여성 범죄인만이 선천적이고, 약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환경, 즉 남편 또는 애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범죄나 부도덕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김슨·래프터, 2011: 38; Lombroso, 2004). 쿠도는 롬브로소의 이러한 견해를 식민지 조선의 여성 범죄에 대입하였다. 다만 롬브르소가 여성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으로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을 지목하였다면, 쿠도가 보는 조선의 환경은 사회적이며 ‘민족적’인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로써 조선 여성의 범죄는 조선의 ‘습속’과 ‘전통’에서 기인하는 “민족병”이 되었고, 조선 여성은 ‘전통’에 의해 고통 받는 ‘희생자’로 재현되었다. 쿠도의 논의는 식민주의가 식민지인을 문화적으로 열등한 인종으로 상상하고 재현하는 방식의 전형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조선 민족에 대한 계몽과 관습의 개혁을 위한 식민주의의 관철은 정당했다.

그의 이 같은 인식론은 본부살해범이 선천적 범죄자여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다시 생물학적 ‘인종주의’와 강하게 연결되는 모순을 연출하였다. 그는 본부살해범의 출신지를 조사하여 <그림 5>와 같은 도표를 완성하였다. 그가 계산한 남편살해범의 도별 비율은 경상남도가 가장 적고, 황해도가 가장 많았다. “야만적인 여성 범죄가 남쪽 지방에 적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하여, “경상도와 황해도를 대비하면 약 10배의 비율”을 보이니, 본부살해범이 “일본 내지에 근접할수록 적고, 만주국에 가까울수록 많다.”는 것이 그가 도출한 결론이었다(工藤武城, 1933a: 59). 즉 남쪽과 달리, 북쪽에는 성질이 흉악한 사람이 많아 살해범이 많다는 생물학적 ‘인종론’이 ‘환경’을 대신하여 고개를 드는 논리 파탄을 보여준다.

근시 혈액형학의 진보에 수반하여 남부조선은 일본 내지의 형에 가깝고, 북상함에 따라 그 유사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여자의 살해범 계수도 이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면, 장래 혈액형학, 유전학, 인류학, 민족학의 진보로 인해 이 관계가 천명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략) 북변의 민족은 지방적 풍속·습관·성질이 매우 흉악하고 사나워 뒷사람에 반항하여 어진 관리가 적용하지 못한다. (중략) 북변의 민족은 저 사납고 흉포하기로 유명한 여진족과 오랫동안 범죄자의 유배지인 고로 형벌자로서 추방된 조선인과의 혼혈아의 자손인 때문이다(工藤武城, 1933a: 59-60).

그림 5. 本夫殺害犯女性과 有夫女子의 人口比例 道別順位

Fig. 5. The rankings of population Ratios of husband murderers and married women by provinces



(工藤武城, 1933a: 58)

그러나 '남부 조선은 내지, 북부 조선은 만주'라는 도식은 쿠도 특유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 진행된 체질인류학적 연구 성과를 적극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제국 일본이 새로 편입한 식민지 조선 통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조선인의 몸을 인종적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인종학적 층위에 자리매김 하는 작업이었다(서홍관·신좌섭, 1999; 박순영, 2006; 김옥주, 2008; 정준영, 2012). 쿠도는 당시

발표된 체질인류학적 연구 중 특히 “혈액형”에 의한 인종 분류에 상당한 공감을 나타냈다. 식민지 조선에서 1920년대 초부터 이루어진 혈액형 연구는

홍양희: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쿠도(工藤武城)의 “婦人科學”적 지식을 중심으로

혈액형 분포의 차이를 지수로 나타낸 ‘생화학적 인종계수’에 의해 인종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sup>26)</sup> 키리하라(桐原眞一)의 지도를 받은 경성제대의 백인제에 의해 “북부 조선인은 만주인, 남부 조선인은 대화민족”에 가깝다는 학설이 공식화되었다(白麟濟, 1927: 39). 이들 연구는 생체 계측 등의 방법을 통해 일본인과 주변 민족들 사이의 인종적 차별성과 위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일본인의 인종적 우위와 특권적 위상을 확보하려 한 것이었다(정준영, 2012).

본부살해범 계수를 가지고 혈액형 연구와 비슷한 결론을 도출한 쿠도는 여성의 ‘월경’, 즉 ‘초경 연령’을 통해서도 인종적 차이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였다(工藤武城, 1933b: 52). 그는 강원,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의 팔도를 남부로, 황해, 평안남북, 함경남북 5도를 북부로 분류하여 여성의 ‘초경 연령’을 조사하였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남부의 여자는 초경 평균 15년, 북부의 여자는 15년 1개월”이 평균이어서, “북부의 여자가 남부의 여자에 비해 평균 1개월” 늦었다. 그리고 다시 “地田氏が 북부 평양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은 16년 6개월로 다시 늦어지는 것에서 보아, 적어도 남부 조선 부인은 빠르고, 북상함에 따라 늦어진다.”고 부언하였다. 결국은 “남쪽으로 감에 따라 내지 일본 부인 초경 평균에 가깝고, 북쪽으로 감에 따라 이것에 멀다.”는 논의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쿠도의 조사는 남부와 북부가 1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아, 이것을 ‘차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수치였다. 그럼에도 그는 굳이 이전의 조사를 끌어들이며 결론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초경이 빠르면 범죄 관련성이 많다’는 이전 논의대로라면, 초경 연령이 빠른 남부에서 본부살해지수가 높은 결과가 나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내지 여성의 초경 연령과의 유사성이라는 기준만이 제시되는 모순을 또한 드러냈다. 쿠도는 이렇게 모순적이고 건강부회적인 논의를 통해 “월경

26) 식민지 조선에서 진행된 혈액형 연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준영, 2012)의 논문을 참조.

형, 혈액형, 頭蓋矢狀橫經指數, 본부살해범인의 지수 등 모두 남쪽 조선 부인은 내지 부인에 가깝고, 북쪽으로 감에 따라 이것과 멀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 깊은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工藤武城, 1933b: 52).

결국 후천적 ‘환경’ 요인이 여성 범죄 유발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다시 ‘혈액형’이나 체질로 돌아가는 쿠도의 모순적 논의 구조는,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의 인종적 열등성을 통해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선 남부와 일본 사이의 일선 동조의 가능성을 열어두려 하는 식민지 관학 연구의 인식과 동일 궤도에 존재하는 동시에,(정준영, 2012: 534) 식민 지배의 모순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것은 ‘차이’를 부각시켜야만 하는 식민지 정치 현실과, 다른 한편에서는 식민지 통합의 논리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제국 통치의 딜레마이자 역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 5. 맺음말

이 논문은 쿠도의 “부인과학”적 의학 지식이 식민지 조선의 문화 ‘전통’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였는지를 구명하였다. 여성 범죄, 부인과학, 그리고 조선 사회라는 삼자 관계에 대해 논한 그의 글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지적 권위를 가지고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그의 위치를 의학 지식의 생산자 및 전파자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그의 부인과학적 지식에 의해 여성의 몸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그의 여성에 대한 생리학적 지식이 조선 사회를 재현하고, 그를 통해 조선의 ‘전통’이 발명되는 방식을 추적하였다.

일본에서 나가사키의전을 졸업한 쿠도는 동경제대 하마다 교수의 조수로 들어가면서 “부인과학”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그는 일본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다시 조선으로, 즉 국가들 사

이를 순환하며 부인과 지식을 형성하였다. 당시 최첨단 서양 의학을 섭렵한 부인과 의사라는 그의 자부심은 역으로 동양 의학을 저열한 것으로 정체화(identification) 하는 오리엔탈리스트적인 면모를 가지게 했다. 때문에 그는 부인과학적 지식을 조선 사회에 전파하여 억울하게 죽어가는 조선 부인을 구해야만 한다는 일종의 ‘문명화’의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병원의 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계몽과 함께 ‘의학’ 지식을 설파하는 등 서양 의학자로서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데 열심이었다. 서적의 저술, 강연, 언론 기고 등이 그가 자신의 사명을 실천하는 주요한 방식이었다.

일본과 서구 유럽의 근대 의학을 공부한 쿠도는 이 과정에서 19세기 이후 근대 ‘의학’ 및 ‘과학’에 큰 지적 권위를 부여하였다. 더욱이 이로 인해 기존에 알 수 없던 여성의 행동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서양의 생리학은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다. 그러나 그가 심취해 있던 여성의 몸 에 대한 지식은 사회진화론, 사회생물학에 기초한 롬브르소 학파의 범죄생리학, 범죄인류학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행동을 해명할 수 있는 비밀의 문은 “생식기”에 있었다. 생식기의 차이는 곧바로 인간을 그 출발부터 육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여성이 열등하고 사회생활에 적합치 않다는 논리로 이어져, 성별 역할분담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성 본질주의’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여성의 ‘몸’에 대한 해부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쿠도의 분석은 여성을 불안정하고 범죄적 성향을 내재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였다. 여성 특유의 생리적 기능인 ‘월경’은 범죄를 유발하는 기능으로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그에 따르면, 월경 중이거나 월경에 이상이 생기는 임신, 분만 및 산욕, 그리고 수유기의 여성은 범죄적이었다. 이 시기의 여성은 정상인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정신병’ 상태인 것으로 규정되었다. 월경이 멈춘 갱년기와 노년기의 여성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한 여성들’이었다. 쿠도에게 여성의 범죄적 성향은 ‘병리적’이 아니라 ‘생리적’인 것이어서, 보편 그 자체였던 것이다. 특히 생물 진화

론적 관점에서 톰브로소의 '격세유전'의 법칙을 신봉하는 쿠도는 '원시시대에는 여성이 남성을 압도하는 잔인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 성질은 잠재적으로 유전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시적 잔학성은 '성욕 변조'에 의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그에게, 조선에는 '성욕 변조'를 일으켜 그녀들의 잠재된 광폭성을 유발하는 '특유'의 '사회적 환경'이 존재하는 바, 그것은 바로 조선의 결혼 '습속', 즉 '조혼'이었다.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선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남편 살해범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형무소에 수감된 여성들에 대한 조사 결과 그녀들은 '선천성 범죄형'도 전혀 아니었다. 여기에서 그가 주목한 것은 이 범죄자들이 '초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생활에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부인과학' 상 '생리'를 무시한 결혼이 성욕 변조로 인한 '격세유전'을 유발하여 남편 살해로 이어졌다는 논리를 구성하였다. 결국 그에 의해 '조혼'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자 조선의 오랜 '전통'으로 지목되어, 조선의 미개성과 야만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지표가 되었다.

그러나 쿠도는 여성 범죄가 '선천성'에 원인이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이를 다시 생물학적 '인종주의'와 연결시키는 모순적 논리 파탄을 드러냈다. 남편 살해범의 도별 비율과 초경 연령의 도별 비교 등을 통해 조선의 남부는 일본 내지인과, 북부는 만주인과 흡사한 인종이라고 분류하고, 나아가 조선인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인종적으로 다른 부류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당시 조선총독부의 막강한 지원 아래 경성제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혈액형 연구나 체질인류학적 연구의 결론과 동일한 맥락에 있었다. 조선 북부의 인간을 야만적인 만주인으로 남부인을 우월한 내지인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나, 조선의 여성 범죄자가 체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조혼이라는 '악습'을 구성하는 논리는 '차이'와 '통합'이라는 제국적 질서의 양가적이고 역설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더욱이 쿠도의 논의는 형무소의 여성 범죄자들을 접견하여 분석하는 경험



홍양희: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쿠도(工藤武城)의 “婦人科學”적 지식을 중심으로

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였지만, 사실상 그의 결론은 귀납적이기 보다는 연역적인 측면이 훨씬 컸다. 대부분의 논의가 롬브르소의 범죄자 분석이라는 범죄 인류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그의 주장을 거의 재연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생리학적 접근에서부터 여성 범죄가 선천적인 것보다는 사회적 환경에 더 많은 지배를 받는다는 논의 또한 롬브르소의 再版이었다. 다만 롬브르소가 여성들이 처한 환경을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적인 것으로 단정한 반면, 쿠도에 의해 식민지 조선에서 그 '환경'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것으로 치환되었다. 이 점에서 쿠도의 논의는 서구의 의학 이론 그리고 범죄인류학적 지식이 비서구 식민지에서 읽히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아울러 쿠도의 여성의 몸에 대한 생리학적 논의는 지금 현재에는 거의 '사이비 과학'으로 치부될 정도로 불안정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과학이 보여주는 '객관성'과 '보편성'에 의지하는 힘과 권위 역시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늘 경계가 조정되는 견고하지 않은 사회적 맥락 안에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자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민족/국가의 문화 '전통'은 고유한 본질 그 자체이기 보다는 트랜스내셔널한 공간에서 지식의 국가 간 이동을 통해 타 민족/국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지점에서 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 그리고 그 차이의 준거 중의 하나가 서양의 '과학'/'의학' '지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색인어:** 쿠도, 공등무성(工藤武城), 의학지식, 부인과학, 전통, 조혼, 범죄 인류학, 체자르 롬브로소, 여성의 몸, 본부살해, 지식의 트랜스내셔널 순환

투고일 2013. 4. 8    심사일 2013. 4. 15    게재확정일 2013. 5. 4

## 참고문헌

〈자료〉

○ 『매일신보』

「工藤院長의 普濟」, 『매일신보』 1913년 5월 4일.

「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매일신보』 1917년 8월 3일.

「難産은 婦人의 鬼門」, 『매일신보』 1923년 8월 6일, 1923a.

「제2일도 의연히 성황중에서 부인 강연회」, 『매일신보』 1923년 8월 6일, 1923b.

「多年宿望을 실현-부인하리강연회강사 工藤武城氏 答辭」, 『매일신보』 1923년 8월 11일,  
1923c.

「매일신보의 힘으로 “多年宿望”을 실현」, 『매일신보』 1923년 8월 11일, 1923d.

「乳幼兒愛護思想 普及大講演會」, 『매일신보』 1933년 4월 27일.

○ 工藤武城

工藤武城, 『婦人의 調攝』, 京城婦人病院, 1912.

工藤武城, 『婦人之養生』, 京城婦人病院, 1913.

工藤武城, 『助産婦學講義錄』, 京城婦人病院, 1914.

工藤武城, 「스닥터-, 헐버트 군에게 與ㅎ·口」, 『매일신보』 1919년 9월 8일, 1919a.

工藤武城, 「스닥터-, 헐버트 군에게 與ㅎ·口」, 『매일신보』 1919년 9월 9일, 1919b.

工藤武城, 「婦人に関する法醫學(一)~(十五)」, 『경무회보』 182, 1920a; 183, 1920b; 184,  
1920c; 185, 1920d; 186, 1920e; 187, 1920f; 188, 1921a; 189, 1921b; 190, 1921c;  
191, 1921d; 192, 1921e; 193, 1921f; 194, 1921g; 195, 1921h; 197, 1921i; 199,  
1921j.

工藤武城, 「通俗講話 難産과 安産(一)~(七)」, 『매일신보』 1923년 11월 25일(1923a), 1923  
년12월2일(1923b), 1923년 12월 16일(1923c), 1924년 1월 13일(1924a), 1924년 1  
월 27일(1924b).

工藤武城, 「性慾變調による女子の殘虐性」, 『朝鮮及滿洲』 213, 1925.

工藤武城, 『婦人之養生』 4권, 京城婦人病院, 1928.

工藤武城, 『同民叢書 第1輯 醫學上より觀たる内鮮の關係』, 同民會出版部, 1929a.

工藤武城, 「朝鮮特有의 犯罪(一)-朝鮮婦人의 本夫殺害의 婦人科學的考察(一)~(七)」, 『朝鮮』  
166, 1929b; 167, 1929c; 169, 1929d; 170, 1929e; 171, 1929f; 172, 1929g; 175,  
1929h.

工藤武城, 「婦人科學上より見たる女性觀」, 『朝鮮及滿洲』 266, 1930a.

홍양희: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쿠도(工藤武城)의 “婦人科學”적 지식을 중심으로

工藤武城, 「朝鮮婦人嬰兒殺害の婦人科學的考察(一)~(三)」, 『朝鮮』 177, 1930b; 178, 1930c; 179, 1930d.

工藤武城, 「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學的考察」, 『朝鮮』 213, 1933a; 214, 1933b; 215, 1933c; 216, 1933d; 217, 1933e; 218, 1933f; 219, 1933g.

工藤武城, 「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學的考察(一)~(九)」, 『犯罪學雜誌』 7-4, 1933h; 7-5, 1933i; 7-6, 1933j; 8-1, 1934a; 8-2, 1934b; 8-3, 1934c; 8-5, 1934d; 8-6, 1934e; 9-1, 1935f.

工藤武城, 「醫學から觀た往古の日鮮關係の一考察」, 『朝鮮及滿洲』 323, 1934g.

工藤武城, 「社會婦人科學の觀點より-朝鮮婦人の犯罪を論ず」, 『朝鮮』 256, 1936.

工藤武城, 「醫藥の祖神少名毘古那尊と古代の内鮮關係」, 『朝鮮及滿洲』 354, 1937a.

工藤武城, 「醫藥の祖神少名毘古那尊と古代の内鮮關係」, 『朝鮮及滿洲』 355, 1937b.

工藤武城, 「子宮筋纖維腫性腺腫ノ組織的及臨床的研究」, 『長崎醫學專門學校研瑤會雜誌』 67/68, 1905.

Kudoh, T., “Zum Studium der Histogenese der Ovandidermoide,” 『長崎醫學專門學校研瑤會雜誌』 92/93, 1910.

#### ○ 기타

룸브로소, 체자르, 『범죄인의 탄생-범죄인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 김승 M. · 래프터 N. H. [공]번역, 이경재 역 (서울: 법문사, 2011).

京城新聞社, 『大京城公職者名鑑』, 1936.

國分三亥,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彙報』 1917.

白麟濟, 「北鮮人は滿洲人で南鮮人は大和民族」, 『朝鮮及滿洲』 237, 1927.

緒方正清, 『日本産科學史』, 丸善株式會社, 1918.

朝鮮總督府警務局, 「同民會創立總會竝發會式ノ狀況二關スル件」, 『高警』 1382, 1924.

Lombroso, Cesare and Ferrero, Guglielmo, *Criminal Women, the Prostitute, and the Normal Women*, Gibson, Mary and Rafter, N. Hahn tran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4).

#### 〈연구논저〉

김옥주, 「경성제대 의학부의 체질인류학 연구」, 『의사학』 17-2, 2008.

류승현, 「일제하 조혼으로 인한 여성 범죄」, 박용옥 편, 『여성: 역사와 현재』 (서울: 국학자료원, 2001).

박명규 · 서호철, 「식민권력과 통계: 조선총독부의 통계체제와 센서스」 (서울: 서울대학교

- 출판부, 2003).
- 박순영, 「일제 식민주의와 조선인의 몸에 대한 “인류학적”시선」, 『비교문화연구』 12-2, 2006.
-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서울: 혜안, 2005).
- 서홍관 · 신좌섭, 「일본인종론과 조선인」, 『의사학』 8-1, 1999.
- 아파두라이, 아르준, 『고삐풀린 현대성』, 차원현 외 역(서울: 현실문화연구, 2004).
- 연세대 의사와, 「『조선급만주』 해제 및 의료관계 기사목록」, 『연세의사학』 11-2, 2008.
- 오조영란, 「페미니즘으로 본 의료와 여성의 건강」, 오조영란 · 홍성욱 편,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9).
- 장용경, 「식민지기 본부살해사건과 여성 ‘주체」, 『역사와 문화』 13, 2007.
- 전미경, 「식민지기 본부살해 사건과 아내의 정상성: ‘탈유교’화 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 여성연구』 49-1, 2010.
- 정준영, 「피의 인종주의와 식민지의학: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의 혈액형인류학」, 『의사학』 21-3, 2012.
- 최재목, 「퇴계의 초상화에 대하여-근현대기 ‘퇴계상’ 탄생에 대한 성찰을 곁해서」, 『퇴계 학논집』 2, 2008.
- 하딩, 산드라, 『페미니즘과 과학』, 이재경 · 박혜경 옮김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2002).
- 하정옥,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그 역사와 함의」, 오조영란 · 홍성욱 편,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9).
- 홍양희, 「식민지조선의 “본부살해사건”과 재현의 정치학: 조선적 범죄의 구성과 식민지적 ‘전통」, 『사학연구』 102, 2011.
- Pierre, Darmon, 『医者と殺人者—ロンブローゾと生来性犯罪者伝説』, 鈴木秀治 譯(東京: 新評論, 1992).
- Uchida, Jun, *Brokers of Empire: Japanese Settle Colonialism in Korea, 1876-1945*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1).

-Abstract-

# ‘Medical Knowledge’ and ‘Tradition’ of Colonial Korea: Focused on Kudo’s “Gynecology”-based Knowledge\*

HONG Yang Hee\*\*

\*\*Research Institute of Comparative History and Culture, College of Humanitie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This article attempts to illuminate the ways in which Kudo’s medical knowledge based on ‘gynecological science’ constructed the cultural ‘traditions’ of colonial Korea. Kudo appears to have been quite an influential figure in colonial Korea in that his writing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crime, gynecological science and the Chosŏn society granted a significant amount of intellectual authority. Here, I examine Kudo’s position within colonial Korea as a producer and propagator of medical knowledge, and then see how women’s bodies were understood according to his gynecological knowledge. It also traces the ways in which Kudo’s gynecological knowledge represents Chosŏn society and in turn invents the ‘traditions’ of Chosŏn.

Kudo’s knowledge of “gynecology” which had been formed while it traveled the states such as Japan, Germany and France served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his representation of colonial Korean society.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08-361-A00005).

\*\* Research Institute of Comparative History and Culture, College of Humanities, Hanyang University

Address: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133-791, KOREA

Tel: 82-2-2220-0545 / E-mail: yangheeh@gmail.com

Received: Apr. 8, 2013; Reviewed: Apr. 15, 2013; Accepted: May 4, 2013

Kudo was a proponent of biological evolution, particularly the rules of 'atavism' put forth by the criminal anthropologist Cesare Lombroso, and argued that a unique social environment caused 'alteration of sexual urges' and primitive cruelty in Chosŏn women. According to Kudo, the social environment was none other than the practice of 'early marriage,' which went against the physiology of women. To Kudo, 'early marriage' was an old 'tradition' of Chosŏn and the cause of heinous crimes, as well as an unmistakable indicator of both the primitiveness and savageness of Chosŏn. While Lombroso considered personal factors such as stress as the cause of women's crimes, Kudo saw Chosŏn women's crimes as a national characteristic. Moreover, he compared the occurrence rate of husband murders by provinces, based on which he categorized the northern population of Chosŏn as barbaric Manchurian and the southern population as the superior Japanese, a combination of racism and scientific knowledge.

Kudo's writings provide an insight into the appropriation of Western medical theories and criminal anthropological knowledge by a non-Western colony as well as the ambivalence and contradictions underlying Japanese empire as in the use of concepts like 'difference' and 'unity.' According to today's standards, Kudo's physiological arguments can hardly avoid being called pseudo science, which confirms that the power and authority of science standing on 'objectivity' and 'universality' are actually dependent on social contexts that are constantly being readjusted. In the end, the cultural 'traditions' of a nation/state often taken for granted are social constructions born out of transnational crossing points of knowledges, and on the basis of these constructs are the concepts of differences between nations/states. And one of the core references for these differences in colonial Korea was Western science/medical knowledge.

**Keywords:** Kudo(工藤武城), medical knowledge, Gynecology, tradition, early marriage, criminal anthropology, Cesare Lombroso, women's body, husband murder, transnational circulation of knowledge